

둘이 하나

VoL93

2024 Notrdame Annual Magazine



CONTENTS

여는 글

함께 걷는 길

6

노틀담 포커스 人

'함께' 하기에 소중한 이야기

빛을수록 멋진인생

8

알찬하루, 행복지수 100%

10

희망제작 in 제주

12

꿈과 희망을 향한 도전

레오 Fc, 꿈과 희망의 꿈을 쏘아 올린다.

16

대한민국 패럴스마트폰 영화제
두 번째 도전 '종말이 오려나봐'

18

웃음을 만들고, 행복을 파는 곳
노틀담베이커리 한국 지엠점

22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긍정행동팀이 최종증 통합돌봄서비스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28

건강한 일상, 활기찬 노후!

31

숨 쉬는 자세유지기구

32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 기술

돌이하나 2024 . vol. 93

발행월: 2025년 1월

발행인: 이선애

발행처: 노틀담복지관

편집인: 김승운

주소: 2104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2-37

전화: 032-542-3711~5

팩스: 032-541-7377

홈페이지: www.ntd.or.kr

2025년 새로운 시작

2025년 변화된 미션, 비전 소개

38

노틀담 솜씨

우리동네 사진작가

40

2024 노틀담 대학 작품

41

노틀담 희망나눔

2024년 후원금품 사용 내역

44

행복후원 사랑실천

47



PART. 0

여느 글

함께 걷는 길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자폐성 장애를 가진 성깔 있는 귀염둥이 민결이의 엄마이자 부모 자조모임 맘맘데이에서 말언니를 맡고 있는 조보운이라고 합니다. 작업생태 그룹수업을 통해 노들담복지관과 인연을 맺은 지도 2년이 되었네요.

지난 2년 동안 저와 아이는 참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늘 수업 중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가 이제는 제법 씩씩하게 잘 참여하고, 무엇보다 늘어난 말솜씨로 가끔 저와 남편의 심장을 쿵쿵 뛰게 만들기도 해요.

느리지만 한 뼘씩 자라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작은 희망을 품게 됩니다.

지난해, 저에게는 무척 지치고 힘든 시기가 찾아왔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나의 힘듦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던 그때, 저의 상태를 알아채시고 따스한 말과 눈빛으로 저를 잡아주신 분이 이곳에 계셨습니다.


거창한 위로가 아닌 마음을 알아주는 눈빛과 따뜻한 차 한 잔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를 잘 이겨내고 올해는 노들담에서 특별한 인연을 더 많이 맺었습니다.

지난해 부모 교육에서 만난 장애 아동의 어머님들과 함께 맘맘데이라는 자조모임을 조직해 꾸준히 소통하며,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봉사라 말하기 무색할 만큼 작은 시간을 내어 참여하고 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용자분들을 보며 제가 힘들었던 그때처럼 작은 힘이라도 되어드리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노들담복지관과 함께 한 올 한 해는 저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다양한 '다름'을 가진 우리들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힘차게 걸어가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이곳에 따뜻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PART. 1 '함께'하기에 소중한 이야기

노틀담 포커스 人

중·장년기 남성 관계맺기 지원사업

빛을수록 멋진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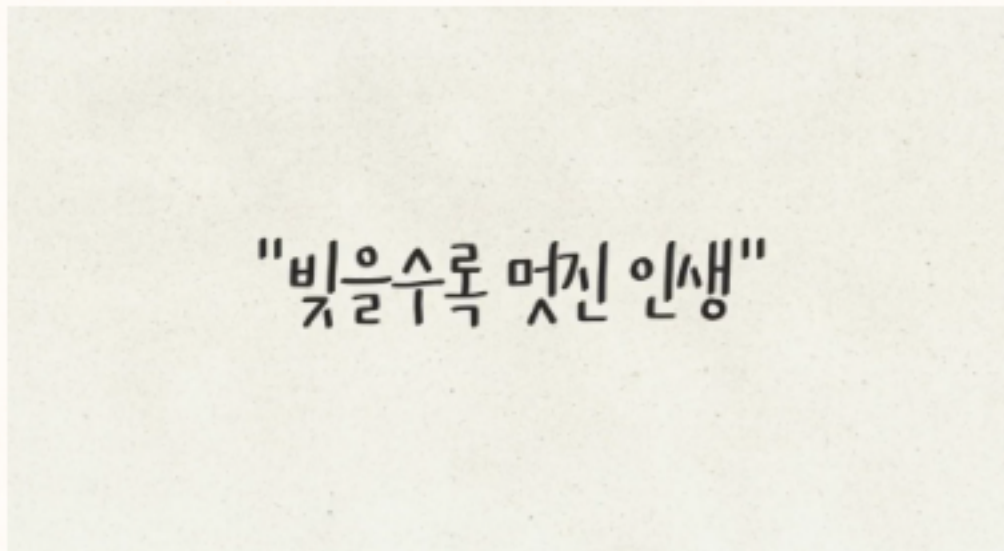
'빛을수록 멋진 인생!'은 노들담복지관이 지엄한마음재단코리아 지원을 받아 도예 활동을 매개로 참여자끼리 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업입니다.

2023년 8월, 지엄사랑나눔봉사팀 자원봉사자와 노들담복지관 이용자가 도예공방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같은 성별, 비슷한 연령대, 무엇보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흠을 빛으며, 인연을 빛어갔습니다.

처음 하는 도예가 낯설었지만, 함께 배우고 서로 도와가며, 나만의 개성을 살린 작품을 완성해나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직접 빛어나만의 그릇을 만드는 경험은 모두에게 소중한 특별했습니다.

늘어나는 도예 작품 수만큼 끈끈하고 돈독해진 10명의 남성들이 작년에 함께한 시간이 아쉬워 올해도 다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함께 도예 활동을 하며 낯선 사람들에서 아는 사이가 되었고, 쌓인 시간은 우리를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더 풍성하게 진행된 '빛을수록 멋진 인생!'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빛을수록 멋진인생의
활동을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같이 모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만나서 같이 있는
시간도 더 길어지는 거 같아요.
지난번엔 우리끼리도 밖에서 만났어요.
전화 한 통으로 부를 수 있는 동네 사람이 있는 게 좋더라구."

노들담복지관과 지엠사랑나눔봉사팀의 중년 남성 10명이 모여 흠을 빚으며, 인생을 빚고, 또 소중한 관계를 빚은 지난 2년의 추억을 앞으로도 이어나가겠습니다. ❤️

알찬하루 행복지수 100%

- 시작배경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기존에 정신건강복지법을 기반으로 제공되었으나, 이 법은 복지서비스의 근거 규정만을 담고 있을 뿐, 세부적인 전달체계나 재정지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어 정신장애인도 의료·재활 서비스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삶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노들담복지관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프로그램 소개 및 프로그램 내용

2023년 정신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자조모임 '알찬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2년째 운영 중이며, 12명의 참여자와 40여 차례의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올해는 정신의료기관 과도 협력관계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 2023 공동모금회 기획[마음충전소 '정신장애인, 지역에 자리잡다'] 공모형 프로그램 수행기관으로 선정

2024년에는 활동 횟수를 원 5회로 늘리고, 더욱 다양하고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활동, 사회활동(일상대화/글쓰기), 심리활동(푸드테라피)
- 자율활동 : 맛집 탐방, 영화 관람, 지역 축제 참여, 봉사활동 등
- 사람중심계획과 실천 : 개인별 지원활동(꿈 프로젝트)



- 참여자의 변화

『**알찬하루**』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서 관계를 형성하고 활동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일상과 성공 경험을 쌓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하고, 정기적으로 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하게 되고, 장애인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을 수강하는 등 다양한 변화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담당자와 복지관과의 신뢰를 쌓으며, 건강한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고, 개인의 고생(정신질환의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평범한 일상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속이 시원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처럼, 이 과정에서 자기성찰과 변화의 욕구가 생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차기년도 계획

2025년, 노들담복지관은 인천 공동모금회의 사업에 선정되어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상호의존을 위한 당사자연구와 강점중심의 사람중심실천-마음길]을 주제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이 사업은 당사자 연구, 사람중심계획과 실천, 상호의존적 관계 맺기,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대 활동 등을 포함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

노들담복지관은 더욱 정신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망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며,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희망제작 in 제주

- 온전한 자유와 새로운 가능성의 여정 -

여행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특별한 경험이죠.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과 세상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기회, 바로 그 여행을 우리는 제주도에서 만났습니다. 푸른 바다와 너른 하늘,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발견했고, 각기 다른 여정을 통해 온전한 자유와 가능성을 경험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계절마다 다른 이야기를 담은 우리의 특별한 기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SCENE 봄. 20대 청춘의 길, 자유를 향한 여정

(직업개발팀 노들담대학 & 직업적응훈련 24.5.28~30.)



20대 청춘의 여행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자기결정'**의 실현이었습니다. 여행지부터 일정까지, 스스로 선택하고 준비한 이번 여행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그려보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직접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며 선택에 책임을 지는 과정은 조금씩 자신감을 키워주었고, 이를 통해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가족과 함께한 여행과는 또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레일바이크, 녹음이 짙은 오름 정상에서 마주한 탁 트인 풍경, 에메랄드빛으로 반짝이는 함덕 해변에서 우리는 모두 활짝 웃으며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숙소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맥주 한 잔, 조용히 걸었던 제주 밤바다는 잊지 못할 꿈 같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제주도 여행은 그저 아름다운 곳을 다녀온 경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 있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유를 통한 자신감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자기결정을 통해 얻은 자유는 단순히 여행의 선택을 넘어, 앞으로 더 나은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가 선사한 평온함과 여행이 준 새로운 힘 속에서 **우리는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었습니다.** 이 자신감은 일상으로 돌아가 더 큰 도전과 희망을 만들어 낼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딛으며 또 다른 희망을 꽃 피우길 응원합니다.

#SCENE 여름. 함께 오른 용눈이 오름, 그리고 더 큰 우리

(능력개발팀 청장년 자조모임 24.7.3~5.)



여름결의 파도가 넘실대고 짙은 녹음이 섬을 감싼 날, 능력개발팀 청·장년반 "올레! 노들담, 갈래! 제주"팀은 설렘을 안고 제주로 떠났습니다. 여행 준비는 한 달 전부터 스스로 계획하며 시작되었고, 이는 우리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신나는 물놀이와 바나나보트를 시작으로 안들오름 비밀의 숲, 제주해녀박물관 방문 등 제주의 역사와 신비로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모두 함께 정상에 다다른 용눈이 오름 등반이었습니다.

완만하게 시작된 길은 점점 가파르고 험해졌습니다. "못 가겠어요"라는 탄식도 나왔지만, 서로 "조금만 더 힘내요!"라고 격려하며 모두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펼쳐진 제주의 풍경은 우리의 피로를 씻어내고, 성취의 기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용눈이 오름에서의 성취감은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우리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짧은 여행이 끝난 지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고, 앞으로의 도전에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용눈이 오름에서의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일상의 작은 오름도 힘차게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SCENE 가을. Fall in jeju 풀인제주

(능력개발팀 중장년 자조모임 24.10.23~25)

유독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초록빛 나뭇잎이 빨강 노랑 가을빛으로 물들 무렵, 우리는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평화의 섬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새로운경험, 그리고 희망

제주의 대표 특산물인 감귤을 직접 따고 맛보며 자연과 교감한 달콤한 시간은 우리의 일상에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성산 유람선을 타고 우도 8경과 해식동굴의 웅장한 풍경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순간, 자연의 위대함에 압도되었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고 풍요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가능성을 깨닫게 하고, 그 가능성은 곧 미래를 꿈꾸게 하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심리적 안정, 그리고 평화

제주 바다의 잔잔한 물결과 맑고 푸른 하늘은 우리 마음에 평화를 선물했습니다. 각자의 어려움으로 흔들리던 마음이 제주 자연 속에서 잔잔히 가라앉으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힘을 얻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은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단단한 기반이 되었죠.

2박 3일 동안 제주도의 풍요로운 가을에 우리는 풍-덩 빠졌습니다. 제주의 가을이 전한 따스함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로 물들였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용기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여행은 풀-인 제주!



능력개발팀 임금O님


"지난 10년간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고, 올해 퇴원 후 노년담복지관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20여 년 전 신문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병원에만 있었으니 제주도는 물론이고 어디 여행을 다녀온 기억이 없네요.

맛있는 음식, 멋진 풍경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 선물 같이 느껴집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여행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선생님과 동료분들이 도와주셔서 불편함 없이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주신 선물 오래 기억하고 추억할게요."

이번 제주도 여행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곳을 고르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자연이 선사한 평온함 속에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이는 일상으로 들어가 더 큰 도전과 변화를 이끌어 낼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었던 계절마다의 여정이 여러분께도 새로운 희망을 전하길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오름을 넘어,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길 응원합니다. 

PART. 2 꿈과 희망을 향한 도전

노틀담 포커스 人

풋살클럽 레오FC 창단

꿈과 희망의 골을 쏘아올리다.



이곳은 계산동에 위치한 아레페 풋살장. 매주 목요일 오후 성인 발달 장애인 풋살클럽 레오FC 멤버 9명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과 게임을 하는 모습으로 시끌벅적하다.

노들담복지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람중심계획실천-꿈지원프로젝트 참여자 김시원씨는 "축구팀을 만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싶습니다."라는 자신의 꿈과 바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풋살팀 이름은 레오로 하고 싶습니다.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하는데요. 사자처럼 멋지고 용맹한 팀이 되고 싶거든요.

멤버는 10명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자체 경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모집 안내문은 전체적으로 초록색 바탕이었으면 좋겠어요. 복지관 홈페이지에 올려서 회원을 모집하면 좋겠어요.

풋살은 실제 풋살장에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창단식에서는 제가 직접 간식을 나눠주고 싶어요.


이처럼 김시원씨는 풋살클럽을 만들기 위한 전 과정에 참여했으며

드디어 지난 **4월 4일, 총 9명으로 구성된 레오FC**가 창단되었다.

어느덧 창단 7개월. 레오FC 주장 김시원씨의 꿈과 희망은 혼자가 아닌 동료들과 함께 계속되고 있다. 풋살클럽을 만들었고,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으며, 함께하는 단체경기로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다. 물론 실력도 많이 늘게 되었고, 체력도 좋아졌으며,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일상의 활력도 얻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로 잘 몰라서 어색했지만, 좋아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 모인 9명의 멤버 모두 **꿈과 희망의 골을 넣는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하나로 뭉치고, 하나의 팀이 되어가고 있다. 정말 멋지고 용맹한 팀이 되어가는 중이다.



한 명의 소중한 생각에서 시작된 꿈지원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고 있는 아름다운 팀 **레오FC**. 희망의 골을 쏘아 올리기 위해 벌써 목요일 오후가 기다려진다. 

노들담대학, 대한민국패럴스마트폰 영화제

두 번째 도전 [종말이 오려나봐]

★ Episode.1 영화 종말이 오려나봐 ★

이 영화가 [종말이 오려나봐] 가 된 이유

처음 우리의 영화 제목을 들으면 인류의 역사 마지막 날, 또는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등 다양하고 조금은 무거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반전으로 코미디 장르이며, 이 영화의 핵심은 지구의 종말이 아닌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누구나 겪는 힘든 현실 앞에서, 보통의 노력과 존재, 삶을 살아가며 보통의 행복을 느끼는 과정이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세상의 종말을 듣고, 믿기 시작하는 혁이의 이야기다. 종말이 예정된 세상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주인공을 통해 반짝이는 희망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종말이 오려나봐] 영화 주인공 혁이의 Story

우리의 주인공 혁이는 발달장애인이며, 밝고 명랑한 성격이다. 날씨는 덥고, 면접은 계속해서 낙방하며 취업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자신과 달리 도서관에 취업해 멋있게 말하는 친구가 부럽기도 하다. 하루하루 흘러가는 자신의 삶에 불평을 가지기 시작한 혁, 하지만 이 영화 주인공 혁이는 불평은 해도 불만은 없다.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종말을 대비하기 시작하는 혁, 천국에 가면 하느님께 잘 보이려고 영어 공부를 하고 친구 은채와 함께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한 운동도 한다. 대망의 종말의 날 8월, 과연 종말이 왔을까?

★ Episode.2 우리의 에피소드 : 배우와 스태프 인터뷰 ★



70대 할아버지, 외국인 역할 장석훈 씨: 안녕하세요? 이번 영화에서 할아버지와 외국인 역할을 멋있게 소화했던 배우예요. 작년에는 조명감독을 했었는데, 올해는 스크린에 데뷔하게 되었어요. 모두 고마워요. 할아버지 역할은 조금 힘들었어요. 제가 21살인데 70대 할아버지처럼 보여야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떤 친구는 친척 집에서 할아버지 옷과 지팡이를 가져다주기도 했고 할아버지들이 자주 착용하는 모자도 챙겨주었어요. 저 어때요?

그런데 촬영날 화면에서 보니 얼굴이 너무 탱탱하고 어려 보인다고 해서 팔 위주로 연기했어요. 팔 연기 전문가 배우라고 불러주세요.❤

조명감독 최지혜 씨: 첫 촬영부터 계양구에 있는 모든 골목을 다 뛰어다닌 것 같아요. 그때가 8월이었는데, 올해 여름이 정말 더웠거든요. 그래서 다들 땀 뻘뻘 흘리며 촬영하고, 쉬는 시간에는 벤치에 누워서 쉬기도 했어요. 힘들었지만 감독님의 '레디 쿨~' 소리에는 모두 눈을 반짝이며 촬영에 임했어요. 그래도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가장 고생했을 것 같아요. 덕분에 우리의 도전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맞이한 것 같아요.



★ Episode.3 심재용 감독님의 에피소드 : 인터뷰 ★

Q. 이번 영화에서 주제 아이디어와 시나리오를 모두 작성하셨는데,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었나요?

A. 작년 영화에서는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면, 올해는 '현실'을 다루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일상처럼 '우리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희로애락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핵심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살아간다." 입니다. 영화 속에서 불평도 하고, 종말을 대비하기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Q. 혁이의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 불평하는 컨셉을 잡았나요?

A. 영화 주인공 삶 속에서 혁이만의 힘들음이 있었겠죠. 모두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하나쯤은 있잖아요? 불평 속에서 하나의 동아줄이나 희망은 혁이에게 종말 이후의 삶일 수 있겠죠. 조금 어렵나요? 저희 영화 세 번 정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혁이의 상황과 마음을 보고, 마지막에는 혁이가 보여주고 싶었던 의도를 이해하게 될거예요.

Q. 감독님만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A. 야외 촬영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정말 더웠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감독이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 붙어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의 의지대로 촬영 Cut, 배우들 톤과 자세 수정, 대본 추가, 영화 강사님과 조율을 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던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에 그려놓았던 시나리오를 눈앞에 펼쳐 놓으니 뜻 깊었던 것 같아요.



Q. [타이타닉] 감독으로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지나치게 망설이거나 신중해서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꿈을 이룰 때는 과감해야 합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심재용 감독님은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간다.' 라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큰 변화가 있더라도 결국은 잘 살아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험악처럼 행복할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말이죠.

★ Episode.4 주인공 혁이(배우 이현준)가 혁이에게 ★



안녕, 혁이야? 나는 혁이야. 올해 스마트폰 영화제에 처음 참여했는데 주인공 오디션에 당당하게 합격해서 혁이가 되었어. 혁이로 살아온 4개월이 나에게 꿈만 같았어. TV, 영화관에서만 봤던 배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넌 나와 닮은 점이 많은 친구야. 나도 너처럼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 지금은 카페 바리스타 일과 직업 훈련,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 강아지 산책, 댄스동아리에 가입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 피곤할 때도 있지만, 이 또한 소중한 나야. 지금 영화 속 삶에서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니? 역시 넌 대단해. 앞으로도 넌 잘 해낼거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방법을 찾는 법이니까. 화이팅 혁아!


★ Episode.5 담당자의 영화 Review ★



안녕하세요? 노들담대학 담당자 박해림입니다. 작년 영화는 학교폭력, 차별의 현실의 무거운 분위기였다면, 올해는 조금은 가볍고 모두가 살아가는 보통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가까운 이야기]로 차별의 현실을 보여줬으니, 우리도 모두와 같은 보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줄 순서인거죠. 그리고 영화의 퀄리티를 통해 우리의 강점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올해 우리의 두 번째 도전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패밀리스마트폰영화제 모집하는 팀이 절반이나 감소하였고, 무더운 여름에 연기부터 촬영까지 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 학이의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의 말처럼 우리는 열정과 즐거자! 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올해는 **4福!**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00명 이상의 참여자 중 주인공 학이가 개막식에서 대표로 수료증을 받을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영화 강사님이 [우수멘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영화는 [입선]으로 수상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어 근사한 회식도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우수후기로 선정되어 참여자 모두 기프티콘을 받아서 가족들과 즐거운 주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도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설레이기도, 또 두려움에 멍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노들담대학에서 추구하는 도전은 일단 즐겁게 시작하자! 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언젠가 어두운 삶이 온다면 멈춰있기보다는 도전하는 방법을 찾고, 그럼에도 잘 살아간다는 삶의 여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들담베이커리 한국 지엠점

웃음을 만들고 행복을 파는 곳

한국 지엠 안에서 향기로운 커피와 맛있는 맛있는 빵과 함께 행복을 판매하는 노들담베이커리 한국 지엠점을 다녀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환하게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반겨준 직원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지엠점에서 웃음을 만드는 우리를 소개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인터뷰를 맡은 노들담복지관 나눔연계팀 김승운입니다! 들어올 때 보니 손님이 아주 많은데도 항상 웃으며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손님이 많아서 힘들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손님이 많아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예전 근무지에서는 손님이 많이 없어서 지루하고 힘들었는데, 한국지엠점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면서 손님이 많아 바빠져서 좋아요. 바쁘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기분이고, 지루하지 않으니까 출근도 기다려져요!!

Q. 출근이 기다려지신다고요?? 정말이세요?

네. 진짜예요. 저희 다운이는 매일 출근을 30분에서 1시간이나 일찍 해요. 어머니께서 정민 선생님에게 제발 출근 좀 천천히 하라고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몰래 일찍 나와 출근하기도 한답니다. (하하).

이쯤 되면 저희가 바빠서 힘든 것 보다, 출근 시간, 일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다는게 느껴지시죠??

Q. 출근시간이 기다려지시다니.. 얼마나 한국지엠점과 일을 사랑하는지 느껴지는데요. 말씀하시는걸 들어보니 손님들과 특별한 관계를 쌓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일을 하시면서 손님들과의 기억에 남는 이야기, 또는 행복하셨던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수민 : 아무래도 이번 디비디비딤 게임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거 같아요! 게임도 너무 재밌었고, 제가 너무 잘해서 많은 분들이 공짜로 못 드셨죠. 하하.

상임 : 저는 지엠 사장님께서 전 직원에게 감사패를 주셨을때요. 상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의 노력을 인정받는 기분이라 정말 짱이었어요!

재민 : 저는 손님께서 직원들 고생한다고 음료수를 사주셨을때예요. 일하며 힘들었는데, 선물을 받으니 힘든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Q. 다들 일 하시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이는데요. 퇴근 후나 주말에는 보통 무엇을 하세요?

진희 : 저는 제가 좋아하는 '소녀시대'의 노래를 듣거나 파스타를 먹으러 다녀요! 저번주에는 상임언니랑 같이 파스타 먹고 왔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다은 : 저는 남자친구랑 데이트해요. 이번에 '아마존 혁명수'라는 영화를 보고, 노래방 갔다가 카페에서 수다를 엄청 떨었어요! 너무 즐거워서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Q. 저도 다음에 그 파스타 집 알려주시면, 꼭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일을 하시면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 또는 모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재민, 다은 : 지금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지금처럼 모두가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이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여기 있는 모두가 함께 해서 힘이 나거든요.

지난번에 모두가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나요. 힘들 때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니깐 없던 힘도 생기더라고요 (하하). 모두가 함께 즐기고, 도와주며 일을 하니깐 더 힘이 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꼭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자! 아자!



상임 : 저는 카페 일이 너무 좋아요. 우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신나요. 또 제가 만든 커피를 사람들이 맛있게 드시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나중에 꼭!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이름은 선생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 슈퍼주니어와, '행복을 퍼주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아 추천해주신 '퍼주 카페'로 (하하) 좋아요.

나중에 제 가게에 커피 드시러 꼭 오세요!

수민 : 저는 꼭!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적금을 들고 있어요. 물론 부모님 용돈도 매달 드리고 있어요(하하).

저번에 갔던 해운대가 너무 좋아서 꼭 해운대에 집을 사고 싶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에 살면, 기분이 너무 좋을거 같아요! 해운대 집 값이 많이 비싸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아서 꼭!! 살거예요.

나중에 제가 초대하면 멀어도 꼭 와주세요!



잔희 : 저는 할머니가 돼서도 커피를 만들고 싶어요! 이왕이면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모두가 함께라면 아픈 곳 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다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너무 재밌고 행복하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선 모두가 다 건강해야만 해요!! 약속할 수 있죠? 우리 모두 건강하고, 평생 지금처럼 즐거울 수 있도록 함께하자!!

인터뷰가 끝난 후, 베이커리 근로자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커피를 주문하는 지엠 직원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유독 근로자분들과 친해보이는 직원분을 볼 수 있었고, 그분께 노들담베이커리란 어떤 존재인지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 노틀담베이커리



안녕하세요? 저는 지엠한국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한승입니다. 베이커리의 원두가 너무 맛있어 하루에 2~3번 카페를 방문하다 보니 이런 순간도 생기네요.

아, 너무 자주 온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저에게 노틀담베이커리란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일상의 스트레스, 업무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해 주는 소중한 공간이죠. 여기만 오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데, 그 이유는 아마 항상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시는 직원분들의 미소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친절함 서비스를 받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항상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저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로 꼭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틀담베이커리 한국지엠점 파이팅!!

행복을 직접 마시고 온 담당자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인터뷰를 진행한 나눔연계팀 김승윤입니다. 노틀담베이커리 한국지엠점 이야기, 모두 즐겁게 보셨나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오늘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베이커리 근로자 다섯분과의 짧은 만남.. 자신의 꿈과 희망을 향해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자신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꿈과 희망은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오늘' 같은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때 한발한발 다가갈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틀담베이커리 근로자분들의 꿈과 희망을 향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

웃음을 만들고 행복을 파는 노틀담베이커리 한국지엠점 인터뷰. 끝!!

PART. 3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노틀담 포커스 人

긍정행동팀이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Q. 최중증통합돌봄사업(긍정행동지원사업)의 시작 배경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노들담복지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소외된 장애인을 우선 배려하는 실천을 해왔습니다. 신체적, 언어적 공격과 자해 행동, 파괴 행동, 정형화된 행동, 소리 지르기, 울기 등 도전 행동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사회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노들담복지관은 2015년 10월 『자폐성 패턴의 서비스 환경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긍정행동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전 행동을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국내 첫 시도라 시행착오가 불가피하였고 도움을 주려는 의욕은 넘쳤지만 해결책이 없고, 배울 곳도 없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이용자를 대하던 사회복지사도 반복되는 도전 행동으로 지원에 두려움을 느끼고 퇴사를 반복하였습니다.



2017년 2월 미국 특수교육 현장 연수 이후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017년 6월 미국 특수교육 교사와 슈퍼바이저를 초청하여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현장전문가를 위한 집중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노들담복지관은 미국 특수교사와 슈퍼바이저를 초대하여 긍정행동실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긍정행동실은 TEACCH 구조화된 중재와 환경 구성을 통해 하루 일과를 예측 가능한 환경으로 제공하고 루틴을 적용하며 이용자의 불안을 낮추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ABC 관찰 기록의 필요성을 접하며, 이용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관찰을 통한 도전행동 기능의 이해와 행동중재지원을 실천했습니다. 도전 행동 예방 전략과 결과 중재를 실천하며, 매일 소란스럽던 긍정행동실이 그렇지 않은 날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긍정행동중재지원 교육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행동 중재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행동 교육과 바른 행동 강화로 행동 중재 지원의 실천과 지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용자는 자기 관리 능력과 사회성 기술이 증진되며 긍정행동실을 벗어나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과 지역사회 활동 경험을 확대하였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경험을 통해 자립증진과 더불어 사회성 기술이 증진되었습니다.

긍정행동지원으로 이용자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긍정행동지원 실천을 통해 지원자가 이용자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태도가 변화하면서 도전 행동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인권적이고 안전한 지원을 실천하며,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긍정행동지원의 가치와 철학은 보급되고 확산되어야 합니다.

Q. 노들담복지관의 최종증통합돌봄사업, 어떻게 펼쳐 나가실건가요?

수도권 내 실천 영역을 확대한 긍정행동지원사업은 2024년에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으로 전환되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노들담 복지관은 긍정행동 중재 지원과 자립 증진 확대 서비스 실천 모델을 연구하고 적용한 것에서 나아가, 이용자의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개발하고 실천하여 이용자의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 과정에 이용자 의사권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 역할 부여로 발달장애인 이미지 향상과 존중받는 삶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도전 행동은 이용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도전행동의 기능 분석과 대체 행동 중재 지원을 통해 도전 행동 발생 빈도를 낮추고, 이용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제도권 내에서 의미 있는 낮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합니다.



Q. 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보람있었던 일, 기억에 남는 이용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반복되는 무기력증과 망상, 환청이 반복되었던 J 이용자는 거친 말투와 위협적인 행동과 공격성으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거부했습니다. 씻는 것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며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고집하던 J 이용자를 위해 이용자가 좋아하는 요인을 모두 담아 '00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관리에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음악을 타인에게 소개하며 다과를 나누기를 즐기게 되었고, 사회성 기술이 증진되어 현재는 복지관 여가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이용하고 매년 단체 캠프에 참여할 정도로 보통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신체를 반복적으로 비벼 때를 만들고 장시간 점토 활동에 빠져 수면을 거부하고 활동을 제지하고, 반복적인 울음과 피부 조직이 손상될 정도로 손목을 물어 자해하는 P 이용자는 지역사회 도예 활동을 연계하여 점토 활동 후 조형물이 굳어지며 활동 시간을 조절하는 지원을 점진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이용자는 작품성 높은 도자기를 만들어 전국 장애인 도예전에 출품하고, 파주 헤이리 마을 전시에 참여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14가지 뇌전증과 행동 중재 약물을 복용하는 W 이용자는 과도한 안정제 복용으로 보행이 불안정해지고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안면을 반복적으로 타격하며 시력이 감소하고, 아파트 입구 유리문을 머리로 파손하거나 자동차에 머리를 강하게 박는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 신고되거나 응급실에서 안정제 투약하며 월 1.5회 응급실 내원을 반복하였습니다. 도전 행동으로 이용자와 지원자 안전이 위협되고, 이웃 주민과 잦은 불화를 겪는 W 이용자를 위해 이용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안정시키는 지원을 통해 공격성을 낮추고, 2023년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 지원하고 도전 행동을 바른 의사 표현으로 대체 지원하고 강화한 결과 2024년에는 데이터 기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도전 행동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가정 내 도전 행동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행동 중재 지원 실천 후 도전 행동이 감소하며 2024년 2월 3일 이후 더 이상 응급실 치료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최종증 통합돌봄사업, 이런 다짐으로 시작합니다!



유혜진 : 8년간 긍정행동지원사업을 담당하다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의 신입 사업 관리자가 된 유혜진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적화된 환경 구성과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긍정행동지원 매니지먼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주영석 :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담당자 주영석입니다. 최종증 발달장애인에게 도전적 행동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들의 강점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지원하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전문가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정 : 긍정행동지원팀 김수정 마리스콜라스티카 수녀입니다. 2024년 1월, 긍정행동 지원팀에 입사하여 최종증 발달장애인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며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최혜원 : 긍정행동지원팀 사회복지사 최혜원입니다.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선호를 파악하여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회 관계망을 확대해 나가며,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장애인 지역사회 기반 관계망 연결을 통한 지역돌봄체 구축사업 건강한 일상, 활기찬 노후!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노화'가 중첩적으로 작용되어 젊은 층의 장애인이나 비장애 노인에 비해 이종고에 놓일 위험이 높고, 장애인 복지 제도와 노인 복지제도가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복지 시스템에서 노년기를 맞이한 고령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이에 고령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고령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노년기를 맞이한 고령장애인의 새로운 욕구를 지원하기 위해 노들담복지관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2025년부터 3년간 진행합니다.

노들담복지관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 지역사회 중심의 자산기반 접근 실천을 바탕으로 고령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지역에서 장애, 노인, 의료, 상담 관련한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각 기관이 전문영역을 통해 상호 교류하며 신체적, 심리적 건강,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를 아우르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지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자산기반 접근의 자산 맵핑을 통한 서비스 연결, 지역사회 기반 안전한 일상생활 영위


고령장애인이 가진 강점, 역량, 능력을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고령장애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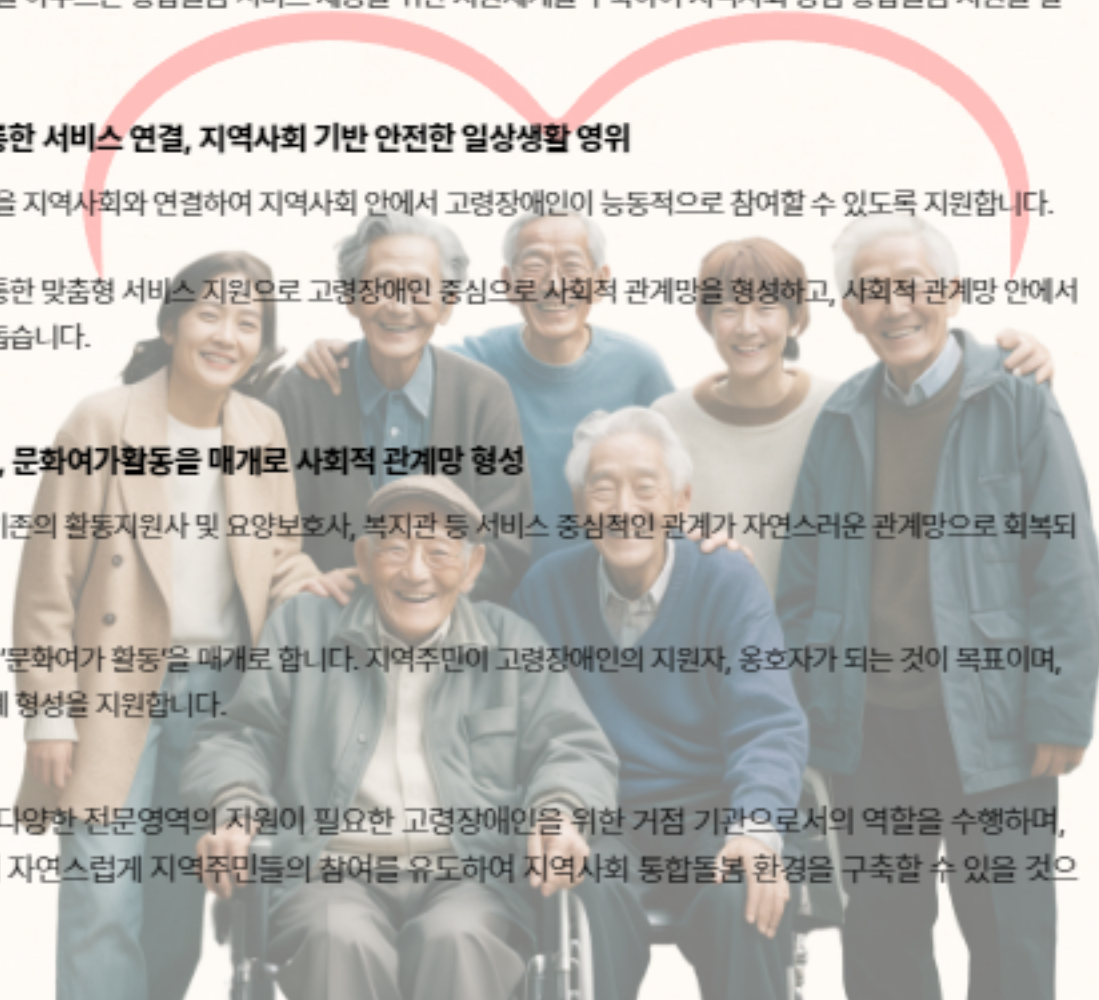
다양한 지역사회 시설과의 연결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고령장애인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안전한 일상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연스러운 관계 회복'에 초점, 문화여가활동을 매개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고령장애인의 관계망 지원을 통해 기존의 활동지원사 및 요양보호사, 복지관 등 서비스 중심적인 관계가 자연스러운 관계망으로 회복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회적 관계망 지원은 '지역주민'과 '문화여가 활동'을 매개로 합니다. 지역주민이 고령장애인의 지원자, 옹호자가 되는 것이 목표이며,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매개로 관계 형성을 지원합니다.

노들담복지관은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전문영역의 지원이 필요한 고령장애인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고령장애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숨 쉬는 자세유지기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 기술

독일에서 만난 새로운 기술 :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Programmable Foam[®]

2023년 9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방문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재활 복지 박람회 REHACARE에서 발견한 보석 같은 기술 Programmable Fo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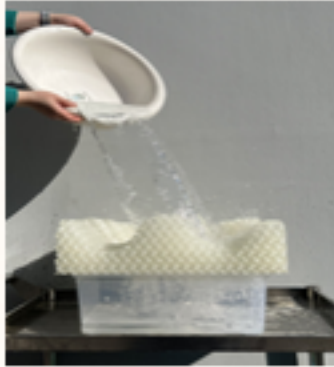
세척도 할 수 있고 공기도 잘 통하며 변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자세유지 쿠션을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 수 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새로운 기술, 지금 함께 알아보까요?



Programmable Foam[®]의 강점을 소개합니다.

Programmable Foam[®]은 덴마크 Create it REAL사의 3D 프린팅 기술로, 3D 프린터와 생체적합성 소재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인 새로운 기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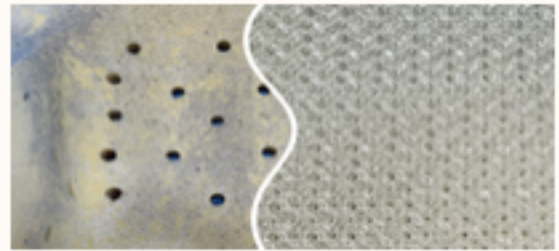


1. 통기성이 좋고, 세척이 가능하다.

Programmable Foam[®]으로 만든 맞춤형 쿠션은 공기, 물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 덕분에 쿠션의 통기성이 뛰어나며, 손쉽게 세척할 수 있어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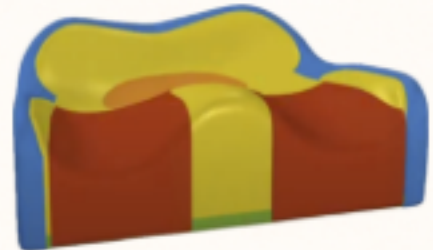
사용하다 보면 쿠션감이 푸석해지고, 먼지나 머리카락 등이 쌓여 씻고 싶어도 씻을 수 없는 우레탄 폼으로 만든 쿠션과 달리, 물을 뿌려도 순식간에 배출되고,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나 개인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국내 최초, 자세유지기구센터에서 Programmable Foam[®] 쿠션을 처음 적용한 사례가 목욕용 쿠션이 필요한 분을 위한 기구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기능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2. 개인별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맞춤형 자세유지 쿠션을 제작할 때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강도를 선택할 수 있어, 편안함이 필요한 부위는 부드럽게, 강한 지지가 필요한 부위는 단단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영역별 강도를 미리 결정하고, 제작할 때 영역과 영역 사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처리하기 때문에 앉았을 때 영역 간의 경계를 거의 느낄 수 없어 편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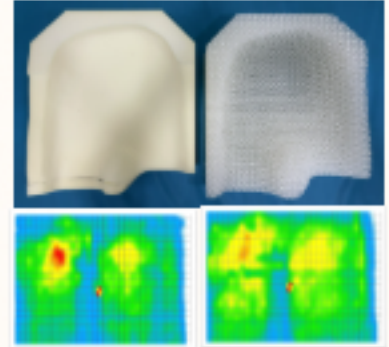
3. 압력 분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Programmable Foam[®]의 개방형 격자 구조는 압력 분산에 효과적입니다.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같은 모양의 쿠션을 우레탄 폼과 Programmable Foam[®]으로 각각 제작하고 두 쿠션의 압력 분산 효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우레탄 폼으로 제작한 쿠션(왼쪽)은 전체적인 압력이 감소했지만, 왼쪽 궁둥뼈 주변으로 높은 압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rogrammable Foam[®] 쿠션(오른쪽)에서는 왼쪽 궁둥뼈 주변에 여전히 높은 압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압력 분포가 넓게 퍼지며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좀 더 고르게 분산된 모습을 보입니다.

Programmable Foam[®]으로 제작한 맞춤형 자세유지 쿠션은 탁월한 압력 분산으로 사용자의 편안함을 높이고, 욕창과 같은 피부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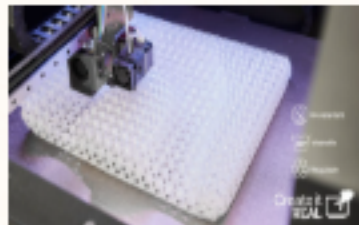


맞춤형 자세유지 쿠션을 만들 때 쓰레기도 만들어진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12.5 폐기물 발생 감소'를 위하여 -

맞춤형 자세유지 쿠션을 제작할 때 발생하는 생산 폐기물이 없는 세상! 상상해 본 적 있나요? '기구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데 쓰레기가 왜 생기지?' 의아해하시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맞춤형 자세유지 쿠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레탄 폼 가공을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절삭가공 방식은 대형 우레탄 블록을 자르거나 깎아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잘라낸 우레탄 폼은 재사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폐기물은 생산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달리 3D 프린팅: 적층 제조 방식은 디지털 준비 단계에서 3D 모델로 형상이 설계되고, 소재를 녹여 한층 한층 겹겹이 쌓아 올려 원하는 모양을 만듭니다. 이 방식은 필요한 곳에만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우레탄 폼을 깎아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기존의 방식에서 3D 프린팅 기술로 출력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면 얼마나 많은 양의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까요?

새로운 제작 방식의 적용으로 맞춤형 자세유지 쿠션을 만들 때 생기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이 작은 변화가 지구 환경에 미칠 나비효과!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편리함을 위해 존재한다.

불편을 해소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원동력이 되고, 이 노력의 결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선물합니다.

만들 수 없다 생각했던 세척도 할 수 있고, 공기도 잘 통하며 변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자세유지 쿠션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 공간적인 부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맞춤형 자세유지 쿠션이 꼭 필요한 장애인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우리가 모두 힘써야 할 때 아닐까요?

PART. 4

2025년 새로운 시작

2025년 새로운 시작, 노틀담의 미션·비전

뜨거웠던 지난 여름 노틀담의 방향과 기준이 되어줄 미션, 비전, 핵심가치, 핵심목표 수립을 위한 전직원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현재 미션, 비전, 핵심가치, 핵심목표에 따라 실천한 성과가 일관되게 이루어졌는지, 최근 이용자 욕구와 정책 변화에서 시대의 사회적 요구는 무엇인지, 환경변화에 우리가 도전할 과제는 무엇인지, 현재 상황에서 더 나아가야 할 미래 목표는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노틀담 구성원이 희망하고, 사명으로 삼는 미션, 비전, 핵심가치, 핵심목표가 도출되었습니다.



노틀담의 미션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사랑실천으로 개인들이 원하는 꿈을 찾아 이루어가며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전은 당사자가 원하는 선택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활동과 관계에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지원 관계망을 확대해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신뢰받는 복지관이 되는것입니다.

핵심가치는 개인의 가치와 의사를 존중하여 반영하고, 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존중하고, 의미있는 관계에 참여와 성취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필요한 변화를 향해 새롭게 도전하고, 깨어있는 연대로 공동체에 힘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핵심목표인 사람 중심의 개인별 지원 강화는 개인의 생애와 욕구 특성에 알맞은 지원으로 성장과 성취들을 이루면서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는 행복한 일상과 활동들을 만들겠습니다.

자산 중심의 지역연결망 확대는 개인의 의미 있는 활동과 관계들이 지역사회에 포함되어 자연스러운 생활들이 펼쳐지도록 넓혀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복지 실천은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를 위해 작은 일상적 실천들을 확대하겠습니다.

핵심목표에 따른 팀별 중점사업 및 세부사업은 생애별 개인의 욕구에 따라 원하는 바람들을 이루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 기능과 역할들을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은 새로운 사업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고령장애인의 지역사회 기반 관계망 연결을 통한 지역돌봄공동체 구축사업이 3년간 기획사업으로 수행됩니다. 고령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과 활기찬 노후를 위해 의료, 영양, 복지서비스 관련 기관들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관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3일 고령장애인 통합돌봄체계 구축 컨소시엄 참여기관 협약식 진행

컨소시엄 참여기관으로 계산노인문화센터, 계양구가족센터, 믿음노인복지센터, 한림병원이 참여하여 2027년까지 3년간 공동사업으로 고령장애인의 건강, 돌봄, 주거, 여가지원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연계를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지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한 일상생활 영위,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확대를 통한 사회적 연결고리 구축을 목표로 협력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상호존을 위한 당사자 연구와 강점중심의 사람중심실천 사업이 진행됩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개인의 주도적인 선택을 존중받고, 서로 어우러져 생활하는 관계능력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2025년 노들담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와 목표에 일치된 역할들을 개발하고, 최선의 수행을 통해 노들담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의미 있는 활동과 관계에 참여하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ART.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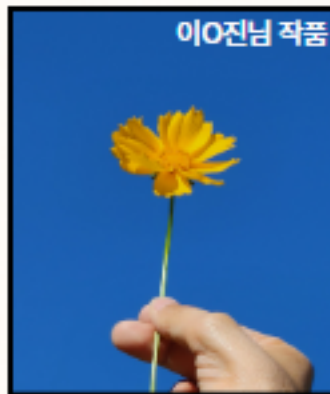
노트담 솜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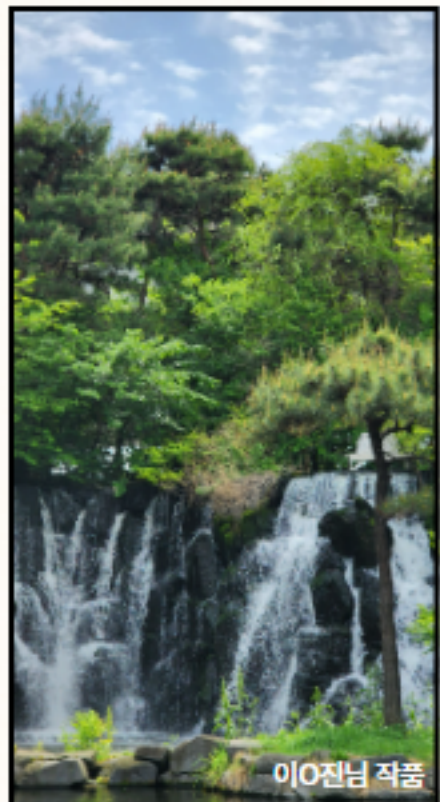
김O숙님 작품



박O수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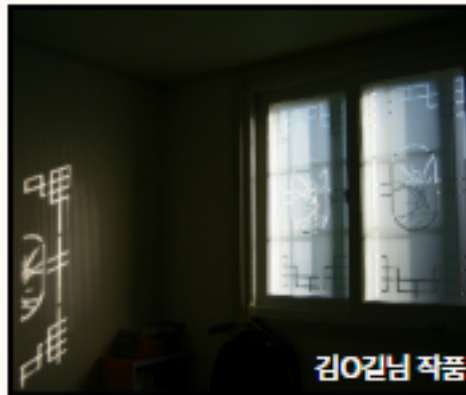
이O진님 작품



이O진님 작품




신O피님 작품



김O길님 작품

우리동네 사진작가

'우리동네 사진작가'는 사진을 사랑하는 9명의 회원들이 모여 사진을 통해 소통하고 관계를 쌓기위해 형성된 자조모임입니다. 촬영기법을 배워 복지관이나 야외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 후 함께 감상하며 서로의 작품을 보고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 당사자들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더 많은 작품을 보고싶으면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감상해주세요! 

지역사랑팀 자조모임 소개 QR





2024년 노들담대학 작품

2024년 10월 노들담대학의 1년의 과정을 모두 볼 수 있는 성과공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성과공유회에선 직접 준비한 연극 발표, 인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직업적응훈련 작업활동, 책으로 예술을 말하는 '북아트', 사진전 등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참여 당사자들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



PART. 6

노틀담 희망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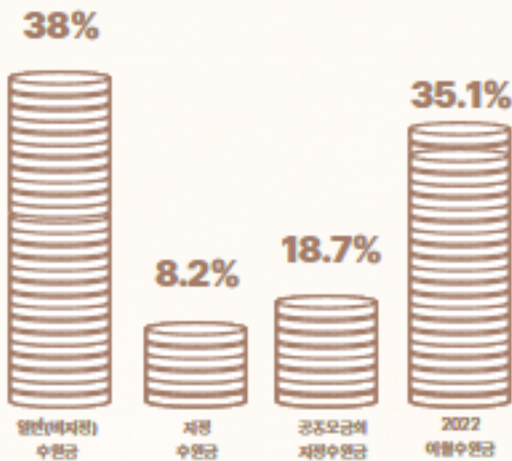
2024년 후원금·품 사용내역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나눔, 가치있는 삶을 실현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복지관 후원금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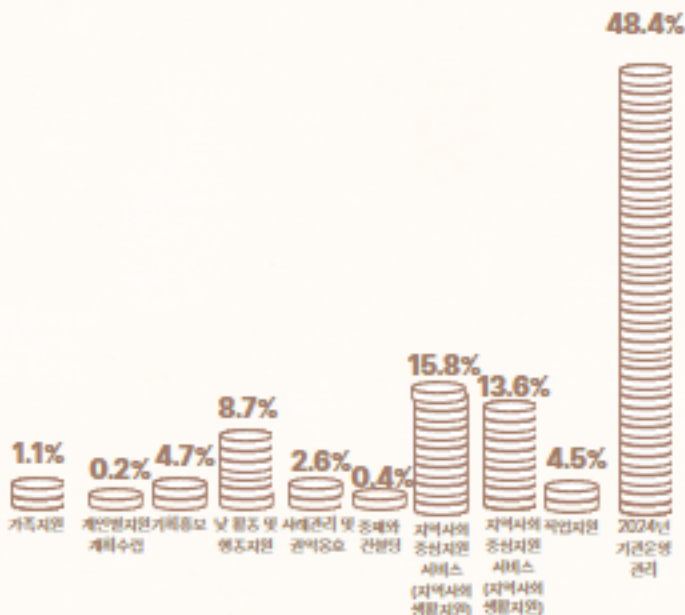
316,188,048원



일반(비지정) 후원금	120,438,771원
지정후원금	25,622,971원
공동모금회지정후원금	59,001,294원
2023 이월후원금	111,125,012원

지출

208,055,206원



가족지원	2,333,150원
개인별지원계획수립	338,400원
기획홍보	9,776,665원
낮 활동 및 행동지원	18,149,990원
사례관리 및 권익옹호	5,496,410원
중재와권선징	821,620원
지역사회중심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지원)	32,781,565원
지역사회중심지원서비스 (지역사회통합환경조성)	28,305,266원
직업지원	9,439,360원
2024년 기관운영관리	100,612,780원

• 이 외에 지역사회중심지원서비스, 낮활동 및 행동지원 등 지정·비지정 사업을 위해 **108,132,842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부된 후원물품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저소득가정의 지원으로 소중히 사용되었습니다.

복지관 후원물품

수입

5,412개

- 참여후원자 45명(국)
- 후원 횟수 177회



전자제품
3개



생필품
859개



잡화
1,291개



식품
2,033개



의류
972개



기타
254개

나눔

5,715개



재가장애인 및
이용자 전달
1,938개



행사사용
2,918개



기관사용
869개

- 식당지원 32개
- 데이케어 프로그램 및 장애인리 지원 100개
- 프로그램 지원 32개
- 기타 705개

한분 한분의 따뜻한 나눔, 가치있는 삶을 실현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별도시설 후원금

노들담 주간이용센터

수입	
계	8,842,267원
이월금	1,858,581원
비지정후원	6,936,686원
지정후원	20,000원

지출	
계	8,842,267원
사업비	5,371,100원
운영비	1,617,970원
이월금	1,853,197원

노들담 베이커리

수입	
계	17,270,044원
이월금	3,070,526원
비지정후원	5,439,049원
지정후원	8,760,469원

지출	
계	11,330,017원
사업비	5,727,520원
운영비	2,884,950원
인건비	250,000원
차년도이월금	2,467,574원

행복후원 사랑실천

우리는 누구에게나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나눔은 장애인 가정에 삶의 힘과 꿈을 향한 용기를 주었고, 특히 노들담대학생 문00님에게는 꿈을 키워갈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은 차이가 아닌 연결로 이어져,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후원자의 나눔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문00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먼저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었죠. 노들담대학을 다니기 전에는 교통비가 부담이 되어 집에서 걸어다니곤 했는데, 후원 덕분에 노들담에 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새로 개관으로 맛있는 정식을 먹고, 도서관에서 힘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후원자님 덕분에 제 꿈을 향한 길에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나눔은 그저 물질적 지원을 넘어, 누군가의 꿈을 키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이야기를 기대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을 후원합니다.

(기금후원자)

노들담복지관

2024년 1월 ~ 2024년 12월

CMS 후원

강금실 강등진 강성호 강은영 강은형 강이화 강재도 고기영 고수주 고은이 고정호 고현욱 고혜진 곽용선 권소현 권유성 권은영 권재준 권현준 김건영 김경목 김경미 김금숙 김기욱 김노아 김도현 김만용 김명길 김미경 김미영 김민섭 김만영 김선민 김선욱 김수민 김 숙 김순식 김산임 김연자 김영수 김영수1 김영임 김영희 김예진 김용득 김원석 김윤수 김은엽 김은희 김재수 김재유 김정민 김정수 김정현 김 준 김지에 김진하 김태균 김태림 김하나 김현정 김형등 김혜연 김효순 김효진 김희선 나대기 노국현 노용은 노지은 류정이 문국현 박경규 박난주 박봉희 박상선 박선영 박선정 박수영 박순영 박신후 박영규 박영석 박영순 박영하 박옥례 박은주 박재홍 박종철 박주연 박준혁 박지만 박지숙 박지환 박태순 박현섭 박해림 박현선 박현주 박홍석 배상순 배진숙 백상명 서민재 서은숙 서지현 선승규 성정임 소식현 손연정 송기만 송덕영 송양우 송지운 신명숙 신수정 신화숙 안등찬 안수형 안종덕 안화정 엄영범 엄윤희 예유경 오관진 오금례 오미숙 오영석 오영욱 오주연 온승훈 원가을 유등준 유순자 유지수 유진숙 유혜란 유혜진 윤경희 윤덕진 윤선에 윤영섭 윤은경 윤재술 윤형미 윤현섭 이 경 이경현 이광재 이광정 이다원 이명수 이명욱 이미란 이미심 이미영 이만영 이범우 이병곤 이보영 이상규 이승찬 이연숙 이연재 이예은 이용갑 이은기 이은미 이은숙 이은아 이재민 이정욱 이정주 이정환 이종민 이종하 이 준 이지웅 이창범 이창진 이충희 이태호 이하늘 이향자 이형찬 이희상 임금옥 임다현 임재희 임태희 장광순 장등현 장선미 장선희 장순화 장슬아 장유순 장은주 장은희 장재규 전병환 전상학 전영구 전용준 전유정 전문서 전지연 전진영 정고은 정기영 정등욱 정성훈 정영규 정영미 정원지 정은영 정은영1 정인순 정재호 정창욱 정혜경 조기환 조미경 조미경1 조미숙 조민아 조세형 조영욱 조정미 조진원 조지형 주지현 진범신 진장현 차성숙 차승호 천선자 천소연 천주성 천현숙 최규민 최길수 최남연 최명운 최명주 최미용 최승학 최옥선 최옥희 최인협 최정인 최종국 최지선 최창석 최추분 최춘욱 최한락 최현욱 최해광 한가람 한성희 한순영 한춘자 함석영 허두행 허성제 허재호 홍상표 홍성호 홍용호 홍정자 홍지환 홍택기 황교성

(주)철은인터내셔널 (주)케이티스틸 가드멜수도회 딸기어린이집 로이텍 명석자동차공업사 명품축산도매센터 반석이블(조상숙)
쌍둥이방앗간(강효준) 예인의료기(한승호) 장수두부 정성할인마트 제이엔씨등물병원 커피에반하다(김순녀)
키즈프라임치과(김수영)

자동이체 및 방문 후원

강동현 고기종 고은이 곽지혜 권오훈 김광수 김동완 김동욱 김명진 김미향 김민희 김병국 김병호 김상현 김상헌 김선욱1 김성숙 김영준 김재형 김정욱 김정훈 김중인 김준규 김충무 김현태 김호중 김효숙 나중원 남은혜 남정인 노승환 노창규 문미혜 문정인 문현수 민경왕 박상진 박정수 박태순 박희정 배규남 배봉광 배정호 서영준 서은비 서지현 서효주 설미영 성명숙 성민수 손용석 신기석 신창욱 심상혁 안재영 안정욱 안현지 양웅필 양정진 양찬욱 양현욱 어명희 오경호 오세원 유송민 은동근 윤성룡 윤장유 이경욱 이경호 이광근 이광수 이기명 이기현 이난영 이문영 이마욱 이상달 이상호 이순배 이승우 이시안 이연재 이은정 이지은 이진선 이진우 이태호 인선중 임진순 임희선 장성호 장승현 장용재 장정은 장혜진 전상길 전상환 전재욱 정명섭 정서희 정 손 정정호 정진영 조민지 조원원 최인목 최종욱 최창호 최한락 최 훈 허병진 한가람 한영순 허두형 허승형 허혜자 허재강 홍보경 홍성민 홍순석 황욱진

(주)마이크로텍 (주)아모레퍼시픽 (주)제이케이글로벌 DK스크린골프(서정란) 국민연금공단부평계양지사 국민은행경인지역그룹 국민은행계양지점 기업은행계산역점 노들담구아동발달지원센터 노들담구청소년팀 대림조경 도진기업 사회복지법인 자염한마음재단코리아 삼기당한의원 서송병원 서은엔지니어링 엄마한입아가한입 에세이마스터(김종우) 인천교구성소국 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승무사업소 인천사회복지사업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주식회사에드텍엔지니어링 커피에반하다(김순녀) 케이엠테크 코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엠인센시오회 한올타리나눔여성회

물품후원

(주)미엔미 (주)에너지임-노현선 (주)에프에이모스트 (주)오색나비 (주)와이디아이 (주)용은 (주)제이케이글로벌 DK스크린골프(서정란) 계양구청복지정책과 계양우체국 고려원약국 구지영 국가대표팀태권도 국민연금공단 국민은행계양지점 김보혜 김수영 대한제분(주) 인천지점 드림라피 박경범 백암장수순대 백하은 법무법인 명도 삼기당한의원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안경지식인 알순아지매 우주먼지 윤백일 음천리382 인천계양점 인천계양로타리클럽 인천교통공사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 자철호 지파운데이션 지현우 참좋은두레생협 코코넨탈 두즈디자인스튜디오 피자헛부평본점 하나기업주식회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림병원 허미영 홍미영

모금함 후원

CU산곡현대점 계산산협임학지점 근마을 계양점 김선하의달걀배 김지훈 닥곰 단킨 공형철도 검암역 도영손옥두부 등촌사브칼국수 딸기어린이집 특생부르크 마산아구해물당 백암장수순대 선한의원 습기서점 신세계약국 안경지식인 옥천관 온누리건강백화점약국 왕가숯갈비 원주추어탕 원할머니보쌈 이바름감자탕계양구청 정성환인마트 코코호도작전점 파리바게뜨계양은행점 피자마루 한솔남시 해모르마트 홍도신경외과 훈장골

노들담 주간이용센터

2024년 1월 ~ 2024년 12월

강문수 강봉구 김명자 김민영 김정현 김혜원 김현태 전권식 서정규 엄영재 임만숙 장원영 전예숙 정혜경 한영주 황철희

노들담 베이커리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성지디비 금시열 김가수 김민지 김예진 김은누리 김필호 담이네2(박문여고) 맹훈호 박미애 박정근 박주연 백다운 송정현 양태빈 예유경 유인철 윤기등 윤은경 이돈하 이병찬 이승찬 이승현 이정민 이종수 이태규 인천광역시장애인재활시설협회 임희선 정다이 정영규 조민아 조화래 주정연 한수연 허재영 홍상표 황정현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원봉사자)

노들담복지관

2024년 1월 ~ 2024년 12월

강양미 강준우 강찬영 강현지 공효임 권경희 권계숙 권선백 권오준 권정숙 김강홍 김경화 김기태 김남기 김대정 김도희 김등수 김려원 김명섭 김무섭 김미정 김백희 김보라 김봉문 김상래 김석현 김선희 김성률 김성수 김범산 김보라 김상래 김석현 김선희 김성률 김성수 김세로나 김소희 김수진 김순남 김순례 김순자 김양숙 김영남 김영석 김영수 김용섭 김용애 김용희 김유진 김은경 김은미 김은화 김인복 김재영 김재울 김재혁 김정선 김정희 김종만 김종민 김종오 김주순 김 준 김지석 김지현 김진기 김진숙 김진태 김춘화 김현식 김현주 김효자 나용희 나현서 나현주 남미숙 남시은 노창규 노하정 문은정 민현숙 박경아 박광욱 박금숙 박명숙 박명실 박미덕 박병보 박선희 박성우 박성종 박숙희 박승민 박승숙 박영훈 박우석 박우열 박이자 박정미 박정선 박정은 박정자 박지훈 박형근 박희정 방경선 방극현 방한솔 배민영 배상순 배창희 백보옥 백수아 변희정 서영월 서용세 서정란 석순자 손수현 손유진 송연옥 송행숙 신도화 신동주 신미숙 신선경 신용순 신진옥 신창욱 신현숙 신현순 심원보 심재희 안상현 안정욱 안중섭 양미소 양은이 양은주 엄지성 염옥자 오경호 오경희 오다경 오애선 오정일 오중오 원영미 유아람 유영자 유재형 유정순 유종석 유 준 유지형 윤남섭 윤다미 윤영건 윤영란 윤장유 윤정림 윤혜영 이경석 이광진 이광현 이금옥 이기선 이남주 이다희 이등규 이명애 이마정 이상미 이성남 이성우 이세호 이슬기 이승욱 이시현 이영석 이우희 이윤선 이은주 이은자 이아슬 이정수 이정애 이재순 이종건 이종민 이종수 이종주 이지영 이진경 이진규 이현숙 이해린 이해옥 이훈상 이희수 이희연 인준영 임경희 임명숙 임소은 임순임 임영실 임주현 임한희 장선희 장정훈 장태길 장태성 전상길 전영희 전유진 전태옥 전해단 정경숙 정기용 정수현 정 순 정원선 정지영 정한주 제유현 조경라 조경호 조보윤 조선남 조성미 조성현 조승환 조승진 조영민 조영식 조은재 조정순 최명환 최민수 최복순 최소리 최옥희 최인숙 최지혜 최창호 최해찬 최혜원 하종덕 하희숙 한승은 한영순 한지우 허현진 현미영 홍상표 홍종금 홍진숙 황등건 황소희

노들담 주간이용센터

2024년 1월 ~ 2024년 12월

김경숙 김도숙 김등오 김 송 김혜경 박점숙 방연자 서가은 서은영 신선자 원혜실 이종연 임유순 정옥순 정은숙 채경숙

2024년 후원 및 자원봉사로 노들담복지관과 함께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가는 삶 속에서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분들의 선한 의지와 실천은 장애인 당사자가 꿈꾸고 희망하는 '보통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들담복지관은 인간존중 정신과 사랑의 실천으로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